

# OCI, 새만금단지에 10조원 투자

## 8월17일 전북도와 투자협약 체결 ... 폴리실리콘·카본블랙 공장 건설

OCI(대표 백우석)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Polysilicone) 공장을 건설한다.

OCI의 투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첫 번째 대규모 투자이자 전북 지역 투자로는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의 최대 투자규모는 2008년 군산에 동지를 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투자액이 1조 2000억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OCI는 8월17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완주 지사와 문동신 시장, 강봉균 국회의장, OCI 백우석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OCI는 현재 가매립이 끝난 새만금산단 1공구 전체(155만㎡)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조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과 카본블랙(Carbon Black)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OCI는 현재 군장국가산업단지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세계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가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공장이 완공되면 30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는 물론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6>